

초등학생의 따돌림 경험이 따돌림 동조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Bullying-Related Experience upon Bullying Conformity Types: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이현주*, 권수정**

김해대학 사회복지과*, 동의과학대학 사회복지과**

Hyun-Ju Lee(kgade@naver.com)*, Soo-Jung Kwon(javajib@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따돌림 경험이 따돌림 동조유형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는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소재 445명의 초등학생 5, 6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AMOS 18.0과 SPSS 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따돌림 경험은 따돌림 동조(가해자 동조, 피해자 동조, 방관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따돌림 경험은 따돌림 동조유형 중 가해자 동조와 정적관계에 있었다. 둘째,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집단따돌림 경험과 따돌림 동조유형간의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집단따돌림 경험은 따돌림 동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돌림 경험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가해자 동조를 낮추고, 피해자 동조와 방관자 유형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를 당한 아동이 학대가해자를 동조하고 있고,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통해서 피해자 동조 및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학대 아동의 상담 및 치료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 강화와 관련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중심어 : | 따돌림 경험 | 따돌림 동조유형 | 자아탄력성 | 매개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which may operate within bullying-related experience and bullying conformity types in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parameter name is ego-resilience.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consisted of 445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main result are the following. First, bullying-related experiences had a direct influence upon bullying conformity types (attacker conformity to the victims, conformity, bystander) without using the parametric ego-resilience. Expecially, the bullying-related experience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ttacker conformity.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related experience and bullying conformity types, using the parametric ego-resilience, it was found out that the bullying-related experience have an effect on bullying conformity typ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Concretely, the parametric ego-resilience has increased from victim conformity and bystander, but decreased from attacker conformity.

■ keyword : | Bullying-related Experience | Bullying Conformity Typescience | ego-resilience | Mediating Effect |

I. 서론

초·중등학생의 집단따돌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의 한 여고생이 집단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선생님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살기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1], 대구경산에 자살한 고교생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으며[2], 울산에서 여고생을 초등학교때부터 집단따돌림을 시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3]. 이러한 사건들은 집단따돌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따돌림의 문제는 따돌리는 아동과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 모두 인격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다[4]. 집단따돌림의 실태를 보면, 초·중등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피해학생이 동시에 가해학생인 경우도 있어서 가해-피해의 중첩성이나 순환성이 증가하고 있었다[5].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모두 겪은 학생들의 비율도 여러 연구[6][7]에서 나타났듯이, 가해나 피해의 한 가지 경험만 있는 학생 비율보다 더 높아서 앞으로 가해집단이나 피해집단과 구별되는 가해-피해집단의 특성과 발생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은 특정한 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화된 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8].

집단따돌림은 집단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힘의 불균형에 의해 대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9], 집단따돌림에서 다수의 가해자 동조집단 및 방관자 집단이 존재하게 된다. 즉, 괴롭힘에 동참하거나 혹은 묵인하는 형태로 집단따돌림 현상이 지속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10]. 최근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목적은 전체 41.7%에 해당하며, 목적 후 44.5%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른 척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유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1]. 이와 같은 방관자들은 보복 등 자신이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가해행동을 묵인해 주는 집단구성원의 존재 즉, 동조해 주는 무리가 있으므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따돌림에 갈등과 불만이 있더라도 주동자가 가지는 권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복종해 피해자를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작업에 동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집단구조에서 집단따돌림의 피해아동이 가해아동이 되고, 동조자 및 방관자 집단의 증가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13].

집단따돌림의 피해 학생들은 사회적·정서적으로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모습 또한 가치 없는 존재로 판단하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14]. 이러한 부정적 자아개념은 연약한 자아로, 연약한 자아는 적응적 유연성이 부족하고 상황의 역동적인 요구에 대응능력이 없으며, 스트레스에 견딜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탄력적인 자아는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삶에서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15].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으로 탄력성이 높은 경우 친구에게 관대하며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계적 성향을 가졌다.

집단따돌림의 피해 학생이 가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성향은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다. 이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은 마음의 상처를 또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수치감,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공포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집단따돌림의 현상은 지속적으로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고교생 집단따돌림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1][16].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장기화되어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때부터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따돌림의 피해아동이 가해아동이 되고, 동조자 혹은 방관자의 증가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묵인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누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경각심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이 집단따돌림의 동조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내적인 힘인 자아탄력성 정도도 따돌림 경험과 동조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집단따돌림 경험

집단따돌림은 은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은어들은 ‘따돌림’이라는 단어 앞에 따돌리는 객체의 의미를 가진 단어나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왕(王)따’나 ‘영따(영원이 따돌린다)’, ‘은따’(은근히 따돌린다)이고, ‘따돌이’, ‘따순이’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성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따(전교생이 따돌림)’, ‘집따(집에서 따돌림)’ 등은 따돌리는 주체를 의미하고 있다[17]. 실제로 이런 현상은 집단이 소수를 유포하거나 주의를 단절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유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집단따돌림의 형태는 ‘따라 다니며 놀린다’, ‘욕한다’, ‘상대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등과 함께 ‘친구 따돌리기’, ‘무시’ 등 심리적인 따돌림이 심각하다[18]. Olweus(1984)[19]는 한 명 이상이 저지르는 부정적 행동에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노출될 때, ‘bullying’을 당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부정적 행동은 남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구타뿐 아니라, 위협한다거나, 못살게 굴고, 놀리는 것 그리고 소외시키는 것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공격행동을 말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 유형에 초점을 두었으나 근래에는 점차 관계적 측면에서의 간접적 폭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rick, Casas, Mosher (1997)에 의하면 이 같은 유형의 폭력은 피해자의 부정적 정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20]하였다. 나아가 또래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한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도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1]. 또한 집단따돌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따돌림을 주도하는 표면적 과정과 구성원들이 이를 묵인하는 암묵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해서 집단따돌림이 확산되는 것이다[22].

2. 따돌림 경험과 따돌림 동조의 매개변수로서 자아탄력성

초등학교에서부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중학교에서 대개 말이 없고, 학습무기력증을 갖고 있고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었다. 학급 전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자신감이 없어 교사와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집단따돌림을 경험 한 피해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23-25]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의해 가장 일반적으로 유발되는 정서는 우울이다[26][27].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집단따돌림은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적인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깊고 부당한 상처나 피해를 받았다고 지각함으로써 분노를 느끼게 되며 이러한 분노는 미움과 원한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을 부정적 방향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된다[28].

또한, Haynie와 동료들(2001)은 따돌림 가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따돌림 피해경험을 당한 경험이 있다[29]고 하였다. Olweus(1984)가 제시한 ‘성나게 하는 피해자(provocative victim)’[19]와 이상균(1998)이 명명한 ‘공격적 피해 학생’[30]이 모두 이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입을 피해를 타인에 대한 가해로 보상받거나 혹은 또래 폭력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친구에 대한 가해에 가담하기도 한다.

이처럼, 집단따돌림에는 다수의 가해자 동조집단 및 방관자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은 괴롭힘에 적극 동참하거나 혹은 묵인하는 형태로 집단따돌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따돌림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13]. 최근 국내에서도 동조성과 집단따돌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31-33]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동조집단의 동조성을 감

소시키거나 방관자적 태도를 줄이려는 연구들도 [34][35] 시도된 바 있다.

이처럼, 따돌림 경험의 피해아동이 나중에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어가는 심리적, 관계적 상황에서, 아동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판별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Block과 Block(1980)의하면 탄력성이 높은 경우, 친구에게 관대하며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계적 성향을 가졌다[36]고 말한다. 또한 친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는 다시 자신의 사회적 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은 편이나 설명력이 있는 연구가 있다. 정성근(2008)의 연구[37]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집단따돌림의 피해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를 잘하고 활력성이 높으며 호기심이 낮은 아동이 집단따돌림의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최윤정, 진혜경, 김종원(2001)의 연구[38]에서 집단따돌림 무경험군에 비해 피해군에서 자아탄력성 척도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과잉행동과 정신적 척도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황적 요구와 행동적인 가능성 사이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전략 가운데 융통성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자아통제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거나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경험이 집단따돌림 동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자아탄력성은 두 변수간의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 대상자는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연구조사의 협조 의사를 밝힌 10개 학교를 판단표

집하여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학교 중 담임 교사가 동의한 학급에서 학생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 학급에서는 연구진이 조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였고, 담임 교사에 의해 조사가 실시된 학급에서는 조사 이진, 담임교사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진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450부 중 445부가 수거되었다.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수 : 집단따돌림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6)가 제작하고[39] 임지영(1997)이 번안·수정한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40]. 이 척도는 관계상의 따돌림을 측정하는 4개 문항(1번~4번), 명백한 따돌림을 측정하는 5문항(5번~9번)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집단따돌림에 관한 신뢰도의 크론바하 알파값(Chronbach a)이 관계상의 따돌림에서 .847이고 명백한 따돌림에서 .886로 나타났다.

나. 종속변수: 동조유형척도

동조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김현주(2003)가 개발한 동조집단 유형[41]을 사용하였다. 김현주(2003)의 동조유형척도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문항에 반영하고 있고, 집단따돌림에 동조한다, 안한다는 의미보다 가해자 동조, 피해자 동조, 방관자로 유형화 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59문항으로 가해자 동조집단, 피해자 동조집단, 방관자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류별로 문항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문항 21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Likert 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동조유형에 관한 신뢰도의 크론바하 알파값(Chronbach a)이 가해자 동조에서 .860이고, 피해자 동조에서 .844 그리고 방관자 유형에서 .628로 나타났다.

다. 매개변수: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go Resiliency)[15]를 채호숙(2008)이 수정·보완한 것 [42]을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전혀 그렇지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사전 경험 후에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고 역산문항은 없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에 관한 신뢰도의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 a)이 .90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집단따돌림 척도, 동조유형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설문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요인별 설문문항 내용

	요인	문항번호	문항 내용
따돌림	관계상 따돌림	1,2,3,4	1. 다른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나만 혼자 남겨진다.
	명백한 따돌림	5,6,7,8,9	5. 친구들이 나를 때린다.
동조 유형	가해자 동조	1-9	4.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말을 조롱한다.
	피해자 동조	10-17	14. 따돌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관자	18-21	18. 따돌림 장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1,4,9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활력성	2,6	6.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감정통제	10,13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 생각을 많이 한다.
	호기심	3,5,7,8,11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낙관성	12,14	12. 나의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 요인명을 대표하는 문항내용만 제시함.

3. 자료분석 및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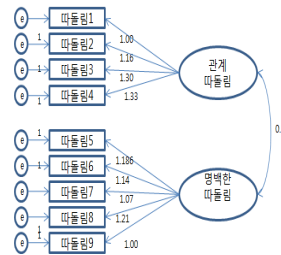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통계기법은 연구목적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AMOS 18.0과 SPSS 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의 따돌림 동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구성개념간의 이론적 관계와 상관성의 측정지표를 통한 경험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계기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모수의 추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분석이다. 또한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전체 유의수준을 0.001의 수준으로 통일하였다.

IV. 분석결과

1. 측정모형분석

측정변수로 사용된 집단따돌림의 잠재변수 2가지 변수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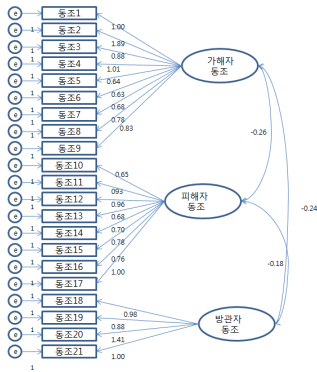
$\chi^2 = 250.497$ P= 0.000 df= 74 $\chi^2/df=3.385$ CFI= 0.956 TLI= 0.937 RMSEA=0.075

그림 1. 집단따돌림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였다. $\chi^2 = 250.497$, df= 74, CIF= 0.956, TLI= 0.937, RMSEA= 0.075로 적합한 적합도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요인적재량과 적합도를 나타낸 것이다.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였다. $\chi^2 = 860.034$, df= 168 CIF= 0.902, TLI= 0.920, RMSEA=0.078로 적합한 적합도라 할 수 있다. [그림 2]는 동조유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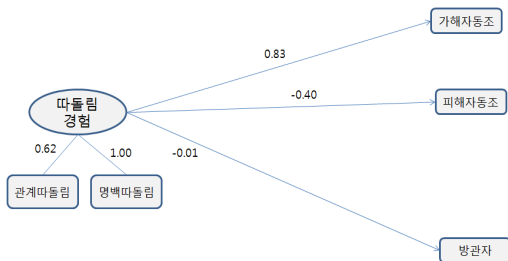


$\chi^2 = 860.034$ $P = 0.000$ $df = 186$ $\chi^2/df = 4.624$ $CFI = 0.902$ $TLI = 0.920$ $RMSEA = 0.078$

그림 2. 동조유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2. 연구모형분석

연구모형 분석은 따돌림경험이 동조유형인 가해자동조, 피해자동조, 방관자에 대한 것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영향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모형은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수 없이 따돌림경험이 직접적으로 동조유형들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기본모형분석은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chi^2 = 19.509$ $P = 0.000$ $df = 5$ $CFI = 0.906$ $TLI = 0.913$ $RMSEA = 0.083$

그림 3. 집단따돌림과 동조유형간의 기본모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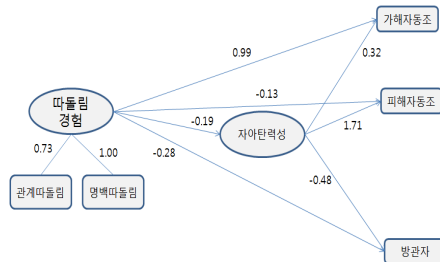
[그림 3]에서는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었으며 [표 2]의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로 보듯이 따돌림 경험 → 가해자동조, 따돌림 경험 → 피해자동조, 따돌림 경험 → 방관자동조는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 경로계수가 각각 .083, -.040, -.01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따돌림을 경험한 아

동은 따돌림의 가해자를 동조하게 되고, 피해자 동조나 방관자 동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본모형 분석의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

모수	모수 추정치	S.E.	C.R.	P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	-0.194 (0.241)	0.056	-3.44	***
집단따돌림→ 가해자동조	0.993(0.338)	0.222	4.477	***
집단따돌림→ 피해자동조	-0.128 (-0.045)	0.153	-0.837	***
집단따돌림→ 방관자동조	-0.028 (-0.060)	0.028	-0.984	***
자아탄력성→ 가해자동조	1.714 (0.488)	0.179	9.590	***
자아탄력성→ 피해자동조	0.317 (0.087)	0.192	1.647	***
자아탄력성→ 방관자동조	-0.048 (-0.085)	0.031	-1.582	***

다음은 매개변수를 포함한 완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완전 구조모형 분석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고, 모형의 경로계수와 추정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chi^2 = 111.213$ $P = 0.000$ $df = 31$ $CFI = 0.944$ $TLI = 0.918$ $RMSEA = 0.078$

그림 4. 동조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모형분석

표 3. 모형분석의 효과 분해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집단따돌림→ 가해자동조	0.828		0.828
집단따돌림→ 피해자동조	-0.401		-0.401

집단따돌림→ 방관자동조	-0.011		-0.011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 가해자동조	0.338	-0.021	0.317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 피해자동조	-0.045	-0.117	-0.163
집단따돌림→ 자아탄력성→ 방관자동조	-0.060	0.020	-0.040

매개변수를 포함한 완전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자아탄력성→가해자동조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은 직접적으로 가해자동조를 향상시키고(.338),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가해자동조를 간접적으로 감소시켰다(-.021). 이는,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은 가해자를 동조하며,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였을때 가해자 동조가 낮아진다.

둘째, 집단따돌림→자아탄력성→피해자동조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동조를 감소시키고(-.045),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피해자동조를 간접적으로 증가시켰다(-.117). 즉,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은 따돌림의 피해자 동조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받을때 피해자 동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따돌림→자아탄력성→방관자동조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은 직접적으로 방관자동조를 감소시키고(-.060),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방관자동조를 간접적으로 증가시켰다(.020). 즉,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아동은 방관자적인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받을때 따돌림 상황에 있어 최소한 방관자적인 태도는 취한다는 의미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따돌림 경험이 따돌림 동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아탄력성

을 매개변수로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은 따돌림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의 따돌림 동조를 완화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따돌림 경험은 따돌림의 동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돌림의 동조의 하위변인 중 가해자 동조, 피해자 동조, 방관자 중에서 가해자 동조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따돌림을 경험한 학생은 따돌림 가해자 동조에 가담하고 있었다. 실제 학교장면에서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있다.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자신이 친구를 따돌린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22.1% 차지하고 있고[43]. 김혜원 외(2000)[44]의 연구에서도 초·중·고교생의 집단따돌림 조사에서 가해-피해 집단비율이 가해자 비율과 피해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해와 피해경험을 모두 지닌 학생은 타인에게 피해-가해교차 행위양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45]. 또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는 가해-피해의 중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5].

둘째,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따돌림 경험과 따돌림 동조유형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았다. 따돌림의 동조 유형에서 가해자 동조는 낮아졌고, 피해자 동조와 방관자는 높아졌다. 즉, 자아탄력성을 매개로한 따돌림의 경험은 따돌림 동조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집단따돌림 경험과 자아탄력성은 부적관계에 있고[46],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집단따돌림 경험이라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적 기제임을 확인하였다[47]. 그리고 송혜리 (2010)의 연구[48]에서는 자아탄력성 요인 중 대인관계 요인만이 집단따돌림 피해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이 다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내적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조절학습능력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9]. 따라서, 집단따돌림과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집단따돌림의 가해자-피해자 중첩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내적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따돌림의 경험이 다시 친구들을 따돌리는데 기여하는 따돌림 동조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따돌림의 가해자-피해자 중첩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초등학생의 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은 자기조절과 통제를 통해 따돌림의 동조를 완화할 수 있고, 따돌림의 방지 및 대책이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아동내적변인도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전의 연구는 따돌림 유형과 관련된 영향요인이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지만, 본 연구는 따돌림동조를 완화하는데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따돌림 동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직·간접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별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가해자 동조, 피해자 동조, 방관자 유형에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경인일보, “집단따돌림 더 이상은 안된다”, 2013. 4. 17.
- [2] 국민일보, “경산자살 고교생 괴롭혔던 학생들에게 실행선교”, 2013. 8. 23.
- [3] KBS 뉴스, 2013. 03. 25, 노준철 기자 리포터.
- [4] J. G. Paker and S. R. Asher,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 Psychol*, Vol.29, No.2, pp.611-621, 1993.
- [5] 이상균, “중학생 또래따돌림(왕따)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pp.357-379, 1999.
- [6] 박나영, 고재홍, “남녀중학생 집단따돌림 발생원천의 성분비교: 사회관계모형분석”, *청소년상담 연구*, 제13권, 제1호, pp.43-54, 2005.
- [7] 서정애, *초등학생의 폭력노출과 비행경험이 집단 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8] 이해영, *학생의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대한 대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 [9] 락금주, “학교폭력 및 왕따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5권, 제2호, pp.105-122, 1999.
- [10] 구분영, *청소년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
- [11] 한국폭력예방재단,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 [12] 김현주, *집단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유형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13] D. Olweus,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35, pp.1171-1190, 1994.
- [14] 고지현, *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상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5]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7, pp.349-361, 1996.
- [16] 손향숙, “집단따돌림 지속의 결정요인-피해아동의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제12권, 제3호, pp.223-244, 2005.
- [17] 김영길, *집단따돌림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8] 김옥엽, “전라북도 지역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논문집*, 제23권, pp.85-124, 1999.
- [19] D. Olweus,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 New York: John Wiley, 1984.

- [20] N. R. Crick, J. F. Casas, and M. Mosher,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3, pp.579-588, 1997.
- [21] S. R. Asher,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22] 김현미,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호, pp.518-527, 2002.
- [23] 김혜원, 이해경,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이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제1호, pp.45-64, 2001.
- [24] 이은주, "집단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11권, 제1호, pp.141-165, 2004.
- [25] 최미경, "아동의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7권, 제4호, pp.133-145, 2006.
- [26] 김예성, 김광혁,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괴롭힘 경험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학교유대감, 공격성의 차이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 경험변화", *아동학회지*, 제29권, 제4호, pp.213-229, 2008.
- [27] 락금주, "한국의 왕따와 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1호, pp.255-272, 2008.
- [28] 김광수, "경험과학적 용서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4호, pp.33-39, 2004.
- [29] D. L. Haynie, T. R. Nansel, P. Eitel, A. D. Crump, K. Saylor, K. Yu, and B. Simons-Morton,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stinct group of at-risk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21, pp.29-49, 2001.
- [30] 이상근,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31] 이은경, 유나현, 전주연, 이기학, "개인심리적 특성이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발표논문집*, 제1권, 제1호, pp.265-266, 2004.
- [32] 유귀순, *따돌림 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술 향상프로그램의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3] 이희경, "문화성향, 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4호, pp.1-25, 2002.
- [34] 김서주, *집단응집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집단 따돌림에 대한 방관적 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5] 윤성우, 이영호, "집단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6권, 제2호, pp.271-292, 2007.
- [36] J. H. Block and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an child psychology*, Vol.13, pp.39-101, 1980.
- [37] 정성근, *초등학생의 가정폭력경험과 자아탄력성의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8] 최윤경, 진혜경, 김종원,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한국아동인성검사를 이용하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2권, 제1호, pp.94-102, 2001.
- [39] M. R. Crick and J. K. Grotpeter,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6, pp.367-380, 1996.
- [40] 임지영,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 [41] 김현주, "동조집단 유형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구, 제5권, 제2호, pp.103-118, 2003.

- [42] 채호숙,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 [43] 김용태, 박한샘, *청소년 친구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편,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
- [44] 김혜원, 이해경,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탐색-초·중·고등학생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5권, 제1호, pp.183-210, 2000.
- [45] P. K. Smith and P. Brain, "Bullying in school: lessons from two decades of research," *Aggressive Behavior*, Vol.1, pp.1-9, 2000.
- [46] 최연희, 김나영,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2호, pp.214-224.
- [47] 박미경,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집단따돌림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48] 송혜리,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 및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9] 이현주, 권수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347-355, 2013.

권수정(Soo-Jung Kwon)

정회원



- 2010년 2월 : 경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사회복지학 석사)
- 2009년 8월 ~ 현재 : 동의과학대학 사회복지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교육

저자소개

이현주(Hyun-Ju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수료(사회복지학 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김해대학 사회복지과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 아동, 가족, 정신건강